



## '12년까지 특허스타기업 400개 육성한다

특허청, 중소기업에 강한 지재권 창출, 보호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사회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2년까지 특허스타기업 400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특허스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핵심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특허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 3년간 특허스타기업을 선정·지원한 결과 출원증기율 13.6%, 매출액 증가율 9.7%, 고용 증가율 9.9%로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지식재산경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은 '1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하여 4,600여 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중 우수한 중소기업 400개를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지원, 시제품제작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관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시스템으로 전환 중!

미국, 유럽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 상표를 직접출원하는 방식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상표관리 전략을 전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 국제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한 한 번의 출원으로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전세계 82개 국가에 각각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상표출원등록제도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표는 전체 180,429건이고 이 중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율은 52,217건으로 28.9%를 차지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노바티스(Novartis AG)를 비롯한 국제상표 상위 10위 다출원 기업들의 마드리드 국제출원율은 77.1%(전체 2,120건 중 1,635건)로 나타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상표관리 방식이 개별국에 대한 직접출원 방식에서 마드리드 시스템에 상표출원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네덜란드 필립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는 마드리드 상표출원율이 98.5%(전체 194건중 191건)에 달했고, 독일 지멘스(Siemens Aktiengesellschaft)도 97.9%(전체 142건중 139건)를 기록하는 등 전격적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이, 해외 유명 기업들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상표권 획득과 유지관리가 개별 국가들에 대한 직접출원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브랜드 전략, 글자체로 공략하라!

KT의 올레체, 하나은행의 하나체 등 브랜드글자체 디자인등록출원 이어져

현재의 모든 시장은 브랜드 전쟁터이다.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식별시키고 경쟁자와 차별화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브랜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요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브랜드 고유의 전용 글자체를 이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예전의 브랜드 전용 글자체는 브랜드네임이나 로고를 디자인하여 표현하는데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패키지, 포장지, 광고, 간판,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브랜드를 통합하고 강화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6년 11월 삼성전자주식회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글자체 출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출원하는 기업 수 또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폰트제작업체와 개인 출원을 합산한 출원건수 대비 기업의 출원은 약 1.7%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14.2%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글글자체 뿐만 아니라 영문글자체, 특수기호글자체, 숫자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출원하여 통합된 글자체의 사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지식재산교육 대폭 확대 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8개 광역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IP) 교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10월 12일(화) 8개 광역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식재산 정규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광역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규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지식재산분야 사이버과정 공동활용 등에 협력한다.

또한 교육기관 간의 세미나 개최 및 협력분야 발굴, 지식재산분야 정보공유 및 전문강사 지원도 이루어진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의 공동브랜드에 대한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분쟁사례 예시 참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홍만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브랜드관련 교육이 대폭 강화되면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및 관리역량이 향상되어 관련분쟁도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체결에서 제외된 광역시·도의 교육원과는 내년 상반기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창업의 필수조건, 서비스표 우선심사신청

자기 상호를 조기에 권리화하거나 상표권 분쟁 예방에 필요

최근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창업 시에 자기 서비스업을 남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호나 브랜드를 서비스표로 빨리 등록받기 위한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신청이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서비스표심사보다 우선하여 심사해주는 제도로써 자기가 사용할 서비스표를 가능한 빨리 등록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업 시작 후 생길지 모르는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613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올해 상반기 신청건수는 320건으로 전년도 하반기(197건)에 비해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 창업이 용이한 음식·숙박업이 17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광고·도소매업이 156건, 교육·오락업이 77건, 의료·미용업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신청이 308건으로 법인이 신청한 305건을 앞지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분쟁해결에 취약한 개인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비스표 전체출원에 대한 개인, 법인 비중은 개인이 약 38%, 법인이 약 62%로 구성됨(2010, 6월 기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①출원한 서비스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와 ②이미 출원한 서비스표를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판 사진, 광고 팜프렛 등 서비스표를 사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2~3개월(일반 상표출원은 10~12개월 소요) 내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가적으로 비용(우선심사신청료)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극히 예외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 우선권주장을 한 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창업을 앞둔 사업자가 자기 상호나 브랜드를 조기에 등록하여 권리화하거나, 출원 등의 검정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먼저 등록한 타인의 상표권으로 인해 사용 중인 상호나 간판을 내려야하는 낭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표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허넷 몽골진출 눈앞에

한국특허정보시스템인 특허넷(KIPOnet) 몽골진출이 가시화되었다.

특허청 이수원 청장은 지난 10월 29일(금) 대전에서 몽골 특허청장(CHINBAT Namjil, 친밭 남질)과 회담을 갖고, 특허넷을 기반으로 한 몽골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긴밀히 협력,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몽골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08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양청 간 정보화전문가회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4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335만 달러 규모의 공적원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자로 선정된 LG-CNS는 최근 특허정보시스템 모델 설계를 위한 몽골 현지 컨설팅을 마쳤으며, 내년 말까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검색을 포함한 통합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특허정보의 민간 활용, 사각지대 없앤다

### 특허청, 新특허정보분석시스템 개발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민간 활용을 돕기 위해 기존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 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을 대폭 개선한 '新특허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 내년 1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新특허정보분석시스템'은 금년 3월에 개통한 지재권정보공유시스템(KIPRIS plus)에 연계된 것으로, KIPRIS plus에서 검색한 특허정보를 통해 특정 분야의 기술분포나 기술발전 단계 등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지재권 정보의 공급자로서 약 1억 8천만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특허정보 서비스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소수의 이용자 계층에만 활성화되어 있을 뿐, 자금여력이나 전산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특허정보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허정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新특허정보분석시스템'은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개발된다. 특허관련 원천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특허정보의 수요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를 특허청이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정보 활용이 미흡했던 중소기업 등은 기술개발 시 분석된 특허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허 검색, 스마트폰 하나로 똑딱!

### 특허청, 스마트폰용 앱(App) “특허검색” 및 모바일 홈페이지(m.kipo.go.kr) 서비스 시작

특허청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인 “특허검색” 과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인 “모바일 특허청 (m.kipo.go.kr)”을 개발하고 지난 10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여 440만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연간 검색횟수가 2,300만 회를 상회하고 있는 특허정보에 대해 “특허검색”이라는 킬러 서비스로 선정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상품에 기재된 특허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를 이용해 출원인, 특허 등록 여부 및 특허 내용 등을 확인함으로써 특허의 진위(眞僞)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대 이용자층인 변리사, 기업의 R&D 담당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경우 선행특허 검색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앱(App)은 우선 국내 사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폰 기반으로 출시되었으며 아이폰용 앱(App)은 올 12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검색” 이외에 “지식재산용어사전”, “특허 수수료계산”, “IPC 코드검색기”, “특허기네스”, “발명다이러리” 앱(App) 등 총 6종의 앱을 12월까지 차례로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13종 이상의 콘텐츠 중심 앱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특허검색은 3천 7백여만 건(10.8월말 현재, 국내특허정보 기준)의 방대한 데이터를 1~2초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검색해서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고난이도 작업으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허청의 모바일 홈페이지인 “모바일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특허청 뉴스, 지식재산 통계를 비롯하여, 일반 사용자를 위한 발명이야기 등 업무에 유용하면서도 재미있는 8개의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제공된다.

“모바일 특허청” 서비스는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였기 때문에, 단말기의 운영체제 종류에 관계없이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윈도우폰 등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장착한 단말기 사용자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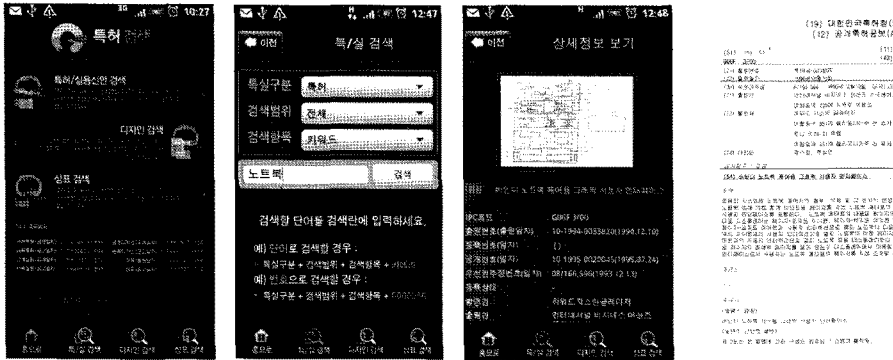
특허청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에 따르면 향후에는 모바일 상표 출원 및 출원관리 서비스 등 전자출원 관련 모바일 특허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특허검색" 앱 다운로드 QR 코드  
(안드로이드 마켓)



〈참고자료2 : 안드로이드폰용 앱(App) “특허검색” 주요화면〉



〈참고자료3 : 모바일 특허청 주요화면 및 메뉴 설명〉



| 메뉴     | 주요 내용                                      |
|--------|--|
| 특허청 뉴스 | 특허청 정책 정보, 속보, 포토 뉴스 등 제공                  |
| 통계연보   | 출원현황, 심사처리기간 등의 주요 통계정보                    |
| 심사지침서  | 모바일용 심사지침서                                 |
| 지재권 제도 | 각종 지재권 제도에 대한 소개                           |
| 권리별 정보 | 권리(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별 기원에서부터 심사제도 등 상세 설명 |
| 동영상자료  | 특허청 홍보영상, 발명 UCC 동영상 등                     |
| 발명특독   | 발명이야기, 발명동화 및 애니메이션 등 서비스                  |
| 사이버 공지 | 방어목적의 공개제외인 사이버 공지제외의 공개자료                 |

제공 특허청